



作故

4 張洋正



在美

1 張然忠



「한국일보 데일리 노컷뉴스 광고기획 마케팅」  
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23길 14-9, B동 501호  
 (수유동, 성지빌라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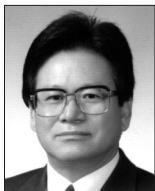
作故

01029

T. 02)916-0199

H-P. 010-5257-0111

2 張榮澤



「멀티미디어 스포츠조선 대표」  
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136, 화인빌딩 3층 (방배동)  
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푸른솔로 41, 601동 301호(죽전동, 도담마을푸르지오)

06664

T. 02)588-8102

slochun@shinkim.com F. 02)588-8104

16814

T. 031)898-3999

H-P. 010-7191-8893

3 張元興